

<http://dx.doi.org/10.17703/JCCT.2015.1.3.47>

JCCT 2015-8-4

중년 여성들의 삶에 대한 조명

How the middle-aged women view her own life?

김정애*, 조의영**

Jungae Kim*, Eui-young Cho**

요약 본 연구는 중년여성들이 현재까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시점에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는지, 그 경험의 의미와 구조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5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여성 7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Giorgi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의미단위 358개를 도출하고, 다시 하위구성요소 26개로 묶은 후 최종 구성요소로 7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중년여성들의 삶에 대한 조명은 「어려운 가정 형편」, 「원가족(family-of origin)의 의미」, 「역동적인 사회 경험」, 「결혼」, 「애달픔」, 「점점 느껴지는 노화」와 「삶의 초점」으로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중년 여성들의 삶에 대한 조명의 구조는 결론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 참여자들이 전문직종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역동적인 사회경험, 결혼, 자식에 대한 애달픔을 경험하면서 노화를 영성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들에게 통합적이고 바람직한 노후를 맞이하게 하기 위한 올바른 영성 프로그램의 제공을 제안한다.

주요어 : 삶에 대한 조명, 중년여성, 현상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what's the middle-aged experience until now and what's the middle-aged women shed light on their life. The phenomenology study design was used and Giorgi method was used for this analysis. We selected 7 middle-aged women for this study such as 2 professor, 1 dentist, 1 own-business woman, 1 house house wife, 1 Nurse, and 1 farming woman.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7 structure factors such as 'poor family economic status', 'meaning of family-of-origin', 'dynamic social experience', 'marriage', 'heartrending', 'getting feeling of aging', and 'focus of lif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ho were more positive feeling of their poor family status, they were more becoming professional job in the adult age. And they shed light on their life with spirituality through the dynamic social experience, marriage, and heartrending. Therefore we suggest that right spiritual program for the better old aged time for them.

Key Words : Middle-aged women, Phenomenology, view her own life.

1. 서 론

중년은 일반적으로 40세에서 60세까지로 보며,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개인에 따라

*정희원,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제1저자)

**정희원, 배재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접수일자: 2015년 5월 5일, 수정완료일자: 2015년 7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8월 5일

Received: 5 May 2015 / Revised: 12 July 2015

Accepted: 5 August 2015

*Corresponding Author: jjosha6615@naver.com

Dept.: Nursing, Pai Chai University, Daejeon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임의적이지만 신체적·정신적·영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현대의 의료 환경은 예전보다 평균 수명을 대단히 연장시켰을 뿐 만 아니라 [1] 외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40세를 중년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나이를 50세에서 59세 사이로 제한하여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자기 성찰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2]. 분석심리학자 Jung은 중년기를 그동안의 인생에 있어서 외적인 방향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내적인 세계, 즉 영적인 세계로 전환시키는 시기로 정의하였는데[3], 중년기는 마음의 과도기로서 이 시기에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에 당면하여 느끼는 이 변화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생동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4].

특히 중년 여성들은 생리적으로 폐경을 접하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남성보다 보다 다양한 정신적·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5].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중년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는 중년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중년 여성의 화병 인식에 관한 내용분석[6], 중년 여성의 폐경 증상경험과 자가 관리 역량,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7], 중년 여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8], 중년 여성의 영성과 자아 존중감[9], 중년 여성의 화병과 상지 관절 동통에 관한 문화기술지[10] 등이 연구되어 주로 중년 여성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들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증상과 대처를 하는 인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연구들은 지나온 경험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현 시점에서의 문제들을 연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여성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경험을 현재까지 하여 왔으며, 현재의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중년여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들이 삶에 대한 조명은 무엇인지 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작되었

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연구 되어 온 중년여성 관련 연구들을 통합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 기억나는 사건은 무엇인지? 그 사건을 경험할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 사건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사건을 경험할 때 가족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그 사건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을 어떤 것인지? 에 대한 질문(Table 2)으로 중년여성들의 삶에 대한 조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년여성들이 바라보는 삶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생태학적 지지와 지원을 통해 통합적 삶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둘째, 중년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구조는 무엇인가?

II.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현상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찾기 위하여 비확률 표본을 이용하였다[12]. 즉, 현상의 특정 측면을 상세하게 탐색하기 위하여 50세에서 59세 사이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년 여성과 전업 주부 등 극단적인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주제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을 선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참여자의 구체적 준거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조사 시점에서 50-59세 연령대로서 의사, 교수, 자영업, 전업주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삶에 대한 조명은 중년여성의 화병 인식[13], 중년 여성의 신체적 불만감[10],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지지와의 관계[7], 중년 여성의 분노 경험에 관한 연구[14] 등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조명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연구 참여자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대한 연구목적설을 설명한 후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 연구가 참여자 인생 여정에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서 어려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약어 표기로 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해하고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참여 의사를 밝히는 50-59세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 준비 및 과정을 위하여 연구자는 중년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계획하고 연구 참여자를 찾기 위하여, 농촌 지역의 거주하는 연구자의 친구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다가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연구자의 이웃이 연구에 참여할 뜻을 밝혀서 인터뷰를 하였으며,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 2명과 치과 의사 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사용한 인터뷰 질문지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년여성의 신체적 증상에 관한 연구[10][7][15][16][17][18][19][20], 중년여성의 정서적 부분에 관한 연구[13][14][21][22][23], 중년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7][24][25], 중년여성의 영적 부분에 관한 연구[22][26][27][28]를 고찰하고 개방형 심층 인터뷰는 '살아온 삶의 사건', '삶에 영향을 미친 경험', '경험의 의미' 라는 3번의 연속적 구조[29]로 구성하였다.

면담은 2015년 5월부터 7월 초까지 참여자별로 3회 이루어졌고, 1회당 평균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모두 참여자 동의하에 녹취하였다. 면담 진행은 연구자가 만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하였다. 1,2차 인터뷰 종료 후 연구 참여자에게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는 것은 추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보완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인적 특성, 인터뷰 시에 관찰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과 행동에 대한 느낌을 기록한

현장노트와 연구 진행과정,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점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연구일지를 작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Giorgi의 연구 방법은 분석과정의 단계는 '전체적 인식', '의미단위 구분', '의미단위의 학문적 용어로의 변형', '구조로 통합'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 ①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하여 그대로 반복하여 대상자의 기술을 읽으며 숙고하였다.
- ② 기술문의 모호한 부분은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시 물었다.
- ③ 참여자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기술의 단위를 중심으로 표현양식이나 어휘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단위(natural meaning unit)를 참여자의 말 그대로 규명하였다.
- ④ 각 단위에서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themes)를 규명하였다.
- ⑤ 그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경험이 의미하는 중심 의미(focus meaning)를 연구자의 언어로 규명하였다.
- ⑥ 중심 의미를 통합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 경험의 의미를 상황·구조적 기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을 하였다.
- ⑦ 상황·구조적 기술문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의 경험 의미를 일반적 구조문(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으로 작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부분에는 밑줄을 긋고, 경험의 의미 간에 상이한 기술 내용이 있는 곳은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의미단위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7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358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의미 단위 들 중 중복되거나 구조에서 벗어나는 단위들은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 의미단위를 기초로 하여

서 구성요소들을 도출해내고 여러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경험의 구조로 통합하였다. 그 결과 중년 여성들의 삶에 대한 조명은 7개의 구성요소와 26개의 하위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조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는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로 분석시마다 원 자료(raw data)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감을 잡고 의미단위 도출과정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질적연구 관련 워크샵에 참여하여 현상학적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연마하였으며, 내용분석의 박사논문을 통해 질적 연구로의 기반을 준비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 중 진술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해석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였고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또한 확인 및 작업을 공유하였다. 더 나아가 질적 연구로 박사를 받은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재분석을 의뢰해서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III. 결 과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도출된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조명의 의미는 7개의 구성요소와 26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Table 3). 이를 각 하위구성요소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조명

구성요소 1. 어려운 가정 형편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을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 ‘가난해서 생긴 흔적들’, ‘잘사는 친구들과 비교됨’을 진술하여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조명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

어릴 적 가정 기억나는 경험은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으로 진술하였는데,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러나 좁은 방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자면서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고 있었으며, 먹을 것이 부족해서 다른 집에 가서 배불리 쌀밥을 먹은 기억

과 함께 배불리 먹지 못하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 아파하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진술을 하였다.

“저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 제가 일곱 번째 아이구,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흔두 살에 한 삼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중간 생략)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둘째 언니가 결혼해서 애기를 낳아서 우리 조카가 나랑 다섯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언니 아이가..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가난했죠. (중간 생략) 정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같이 국수 한 그릇 끓이면 모든 식구가 앉아서 막 먹고.. 우리 집은 잠을 잘 때 방이 따로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렇게 자고(가로로 자고) 모자라서 위에서 자고(세로로 자고)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제가” (중간 생략) 저는 계란을 처음 먹어 본 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는 계란을 드시니까, 안 자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오시면 엄마가 계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데 아버지가 계란을 드시겠어요? 날 주죠(웃음)” <연구 참여자 1>

“나는 엄마가 일을 시키지 않은 편이었던 것 같아. 물론 시골이니까 일은 좀 했지...예를 들면 과수원 일을 좀 도왔다든지..그런데 엄마가 딸은 일 할 필요 없다고 해서 나는 곱게 자란 편이야. 지금 남동생이 엄마 모시고 살아...시골에서... 직장 다니면서...내년 쯤, 직장 관두고 과수원 일만 할 거라고 해” <연구 참여자 2>

“생각해보면, 저는 엄마 아버지가 참 불쌍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 먹이느라 안 드시고...

저는 그래도 방학 때 할머니네 가서 쌀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참 미안한 마음이었어요..늘...(중간 생략) 그래서 나중에 크면 엄마 아버지한테 돈 많이 벌어드려야지 하고.....그게 꿈이었어요.” <연구 참여자 4>

“옛날에는 다들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렇게 힘든 것은 몰랐었는데....어쨌든 모두들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으니까....오빠들은 나무하러 가고 나는 소 밥주고 그러면서

간간히 엄마 일 도와주고 그랬죠...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언니랑 오빠랑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언니가 미국으로 가서 언니가 올 때만 잠깐 보니까 더 보고 싶죠..." <연구 참여자 6>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엄마는 늘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지금 엄마(중풍을 앓고 계심)를 아버지께서 극진히 간병하시는 게 아닐까요? 오빠는 엄마 아버지께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조카들도 그렇고..." <연구 참여자 7>

'가난해서 생긴 흔적들'

가난하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사고에 어린아이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외상을 포함하여 그 외 다른 마음의 상처가 있다하여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 흔적들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이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화상이 있어요. 수제비, 그니까... 엄마가 옷을 다 떠서 입히셨어요. 지금도 엄마가 뜬 옷이 다 있는데, 수제비를 한 통 끓여 놓으면 온 식구가 다 앉아서 먹으면, 순식간에 없어지죠. 수제비가 오니까 겨우 기는 애가 먹고 싶으니까 손을 거기다 담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상을 입었는데, 한 겨울이니까, 짠 옷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여기가 딴 거죠.. 요새는 여름에 여기가 빨개지는 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위로 자는 사람이 제일 안 좋지. 바닥에 자는 사람은 죽어요, 끓어서.." <연구 참여자 1>

"나는 S대 의대를 가겠다고 공부했던 사람이야... 목표가 그랬는데... 엄마가 우리 집에서는 6년제는 못 보내 주기 때문에 의대는 못 보낸다고 했는데, 언니가 와서 - 보니까 치대도 괜찮더라... 치대는 2년만 더 다녀도 되더라.. 의대는 그 다음에 또 10년을 해야 하는데 - 그래서 언니가 설득을 했어.. (중간 생략) 2년만 더 보태주면 그럼 애(연구 참여자)가 나중에 집에 도움이 안 되겠다" <연구 참여자 3>

"저는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겨울에 세수할 때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연탄불에 항상 물을 끓여 놓는데, 어릴 때 방에서 화장실 가려고 자다 일어나서 부엌 연

탄불에 올려 놓은 물에 딴 거예요. (중간 생략). 그런데,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매일 양젓물로 다리를 소독해줬어요(중간생략) 그게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아직도 생생해요. (중간 생략)그러데, 그 소독하려고 놓은 양젓물을 내 동생이 또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어요. 또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에휴...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연구 참여자 4 >

"친구들이랑 왜 예전에는 중랑구 주변이 무밭이었어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철철 났는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형겅으로 누르고 저녁에 몰래 집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게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죠..." <연구 대상자 6>

'잘사는 친구들과 비교됨'

가난하게 살면서 잘 사는 친구들과 비교되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수용하려는 모습과 함께 그 이상(ideal)을 향해 마음을 다 잡는 모습을 보였다.

"중학교 때 그러고 나서(중학교 이 후 부터라는 의미) 저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에 가서 반에서 1등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는 E 여고 들어갔는데, E여고는 워낙 부잣집 애들이 많더라구요. 심지어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부잣집 애들인데, 그런 집에 가면 카페트가 깔려있는 거예요. (이하 생략)" <연구 참여자 1>

"체육시간에 수업마치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더우니까 세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로션을 바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얼굴에 머 발라본 적이 없었어요. 조용히 있긴 했는데, 좀 창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그 친구가 막 자랑하면서 미국에 사는 친척이 샴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써 봐도 되냐고 물으니까 해 보래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한번 감았는데, 그 느낌이 정말 좋더라구요. 향기도 좋고... 그러니까 괜히 기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4>

“나는 쉬는 시간에 애들이 빵 사먹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게 기억나.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갔다가 쉬는 시간 다 지나고 나면 교실로 돌아왔어...” <연구 참여자 5>

“그래서 어쨌든 간 그런 그 친구들 간에 그런 경제적인 격차, 그런 게 너무 크고 나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연구 참여자 6>

“옆 집에 할머니가 한 분 사셨는데, 방학에 서울에서 피부가 하얀 애가 놀러 온 거예요...피부가 하얘서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나도 서울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연구 참여자 6>

구성요소 2. 원가족(family-of-origin)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출생 순위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이 크게 달랐다. 막내인 참여자들은 ‘도움을 준 가족’의 경험을 진술하였고, 출생순위가 딸이인 연구 참여자들은 ‘돌봐야 하는 가족’의 경험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엄마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진술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도움을 준 가족’

“그나마 돈을 버시던 아버지 돌아가시고...(중간 생략)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그 때 둘째 오빠도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그 때 오빠 I대 의대 들어갔었고, 언니 I대 의대 들어갔고, 큰 오빠 겨우 졸업해서 인턴 할 때였으니까 아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상업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생략) 언니가 E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학교 내내 장학금은 물론 장학금에다 생활비까지 받는 그런 장학금을 받고, 그 의대 생이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동생 학비를 냈어요. 그 언니가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냐면...(목이 메이는 듯한...) 왜냐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고, 공부도 할 수 없었으니까, 너무 어려운 집에서 컷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연구 참여자 1>

‘돌봐야 하는 가족’

“나는 집에 대소사를 내가 전부 다 신경을 썼잖아 그러다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엄마 아버지 올라 오시면 나한테 먼저 오고...나는 엄마 아버지가 택시 타고 온다는 걸 상상을 못 하고 아무리 바빠도 모시러 나가고 모셔오고 내일이 시험이어도.... 속상한 거야... 나는 시간이 없고 바빠 죽었는데 언니가 알아서 나가주면 좋겠는데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전화하면 택시타고 오시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짐 들고 택시를 어디서 잡으며.. 생각을 해봐라..나는 그 생각까지 드니까 못하겠는 거야.....근데 언니는 택시타고 오시라고 해 이래 버리는 거야....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언니한테 가겠니? (중간 생략) 언니나 동생들은 나만 믿고 안 하는 거야... (중간 생략) 그러니까 언니가 너도 힘들면 하지말래...” <연구 참여자 3>

“저는 딸이라서 늘 엄마가 집안 어려운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사 시간에 준비해가야 하는 게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 눈치보고...(중간 생략)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마음 고생해서...” <연구 참여자 4>

‘엄마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

“처음에 뉴질랜드에 엄마를 모시고 가던 날, 오빠네 집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아들 세 명 중에 한명이니까..엄마도 아들 보여주러 간다고(엄마는 뉴질랜드에 사는 아들 보고, 연구 참여자는 유학하는 아들 보러 간다는 의미), (중간 생략)갔다가 뉴질랜드에서 오는데, 오클랜드 공항에서 한 번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아들은 뉴질랜드에 두고(유학하는 연구 참여자 아들), 나와서 오클랜드 공항에 왔는데, 엄마가 막 우세요. 갑자기.....(목이 메이는 듯한 목소리)오클랜드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손자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엄마 아들 못봐서 슬퍼서 우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마 어떻하냐? 한동안 둘째 아들 못 볼 텐데...” 나이가 있으시니까...언제 볼지 모르시니까...(그렇게 생각했다는 의미) “오빠 보고 싶겠지? 슬프지?” 내가 엄마 위로하느라고, “엄마도 아들 두고 오고, 나도 아들 두고 오잖아. 괜찮아, 엄마” 내가 그렇게 애길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더 소리 내서 울으시면서 자기는 일곱 있는데서 하나두고 오는데,

너는 하나 있는데서 하나 두고 온다고(울먹임),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흐느낌). 자기가 슬픈 게, 마음 아픈 게 아니고 딸이 마음이 아픈 게 슬픈 거예요. 돌아가셨는데도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말을 못함) <연구 참여자 1>

“엄마가 그 사고를 치지 않았냐고... 내가 못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가지고 빛을 내 가지고 몇 천을 날렸거든... 그렇게 된다. 어른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3>

“우리 엄마는 너무 아끼셔서...안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그게 항상 마음 아팠어요...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나는 너무 놀라고 슬퍼서 막 울었는데, 엄마는 몰래 화장실에서 우시더라고요...나이 드시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한 번도 멋도 못 내시고, 고생만 하셔서...” <연구 참여자 4>

“엄마는 나한테는 다 해 주셨어요... 언니들이 막 머라했지... 그래도 엄마는 몰래 몰래 다 나 갖다 준거 같아. 나는 중학교 때까지 엄마 가슴만지고 잤어... 그래도 늙으시니까 언니들한테 의지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생 인가봐...” <연구 참여자 5>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너무 미안하고...난 엄마를 창피해 했었어요....방안에 머 모셔놓은 것도... 친구들 올라봐 겁나고.... 그래서 막 엄마한테 머라구 했고... 시집에서도 엄마가 무당이라고 무시하고 그럴 때 정말 기죽고...(중간 생략)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인가 우리 집 옆에서 모셨었는데, 그 때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연구 참여자 6>

구성요소 3. 역동적인 사회경험

연구 대상자들은 20-30대를 첫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넓어진 사회 환경 시야’ 와 ‘첫 직장 시작’ 을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조명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넓어진 사회 환경 시야’

“대학을 들어와서도 머 그냥 대학 다니면서는 그냥 나

는 학과 공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왜냐면 별로 재미가 없고 그 학생 운동, 그 학생 운동하는 씨클에 들어가서 학생 운동하고...그런 다른 사회를 보는 시각을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1>

“20대가 너무 힘들었고.....30대는 그야말로 치열하게 가장 치열하게 살은 것 같아.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 그 돈을 갖고 정말 나는 딱 내 돈을 갖고 다 보냈었기 때문에 집에 가장 큰 힘이 되었었고... 보건소에 있었을 때 약사도 있었고...(중간 생략).... 게다가 개업도 내 힘으로 다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지.....그래서 그때 공부를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입장에서 필요한 공부를 30대 엄청나게 공부 했어. 그때 모든 걸 공부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 병원도 키우고 그 때 환자에게 쏟은 정성이 지금까지 오잖아... 진짜 정말 치열하게 산 것 같아” <연구 참여자 3>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공부가 지겨웠어요... 학교가 이상하게 어거지로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여서 더 그랬죠... 정말 고등학교 시절은 기억하기 싫어요. 그러다 대학 들어오니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미팅하고... 남자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 <연구 참여자 4>

“나는 무지하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지... 미대였으니까.... 사실 그 때엔 그렇게 그림을 좋아하진 않았어... 그냥 좋은 데 시집가려고 했고... 엄마도 그렇게 말했고...머 호텔 이런데 가서 미팅했었으니까... 그 때 차 있는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 미팅하면 차 타고 드라이브하고 그랬어... 재밌었지” <연구 참여자 5>

“고등학교 마치고 D시에 바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지요.. 시골에 있을 때엔 집도 좋고 그랬는데, 여기오니 친막 같이 지은 집에서 세 살았어요...좀 비참하게 생각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밤에 남자들이 들어 올라봐 겁났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6>

‘첫 직장’

“병원에 들어가니 월급이 30만원 이더라구요.
받아서 엄마 드리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취업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달도
선지 없이 예를 들면, S병원에서 제가 D 항공을 다녔는
데, D 항공을 옮길 때 한 달이 오버랩 됐어요.
병원에서 휴가, D 항공에서는 먼저 오라서 해서는 한
달을 오버랩해서 나이트하고 가서 일하고 그다음 D항
공에서 I 대학병원 준비하러 갈 때도 D항공에서 제일
탑(top)이었는데, 탑 자리 놓고 거기 I 병원 오픈 준
비하면서 D 항공 자리 다 하면서 I대학 병원 준비했죠.
(중간 생략)일반병동에 11층 일반병동 수간호사도 했
고 그래서 거기 가서도 고생 직짜게 했어요”
<연구 참여자 1>

“20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있는 게 없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내가 졸업하고 치과의사의 길을 걷는다는 걸 알
고 있는 거 뿐이었지...
뭐 취업, 개업, 결혼 모든 걸 내 힘으로 해야 하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거지.
뭐, 갈아주는 걸 가는 친구처럼 그냥 가는 게 아닌 거
지. 유학하는 친구들과 나는 너무 다른 세계인거지.
(중간 생략) 그때 내 교통비만 쓰고 집으로 다 보내 드
렸었거든.. ” <연구 참여자 3>

“저는 인생에서 몇 번의 행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K 병원에 취업된 거예요. 졸업하고 바로 발
령을 받았죠..그 때 월급이 36만원이었는데, 엄마한테
모두 드리고 용돈 1만 5천원 한 달에 타서 썼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엄마한테 돈을 벌어서 줄 수
있다는 게...(중간 생략) 그런데, 병원 다니면서 똑 같
은 생활의 반복이 점점 싫어졌고, 특히 밤 근무가 너무
힘들고... 나이트하면 하루 줄일 잠만 자고...(이하 생
략)”
<연구 참여자 4>

‘치열한 삶’

“게다가 개업도 내 힘으로 다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
한거지.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임

상에서 필요한 공부를 30대 엄청나게 공부 했어.
그때 모든 걸 공부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리고 결혼
하고 출산, 병원도 키우고 그 때 환자에게 쏟은 정성이
지금까지 오잖아. 진짜 정말 치열하게 산 것 같아 내가
30대에 친구 병원에 가서 터미널에 있는 병원.. 삼총사
니까 갔는데.. KK는 돈을 벌어서 아들 외국 나갔다 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럴 수 가 없잖아.” <연구 참여자
3>

‘원망’

“가자마자 공항에서 울기 시작해서 계속 울었거든요.
아이 붙잡고...아이가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첫 질문이 하는 말이 지금 부장된 SH(배신한 친구)이
가 우리 아이에겐 이모거든요...개 아들도 나보고 이모
라고 부르고..어렸을 적부터....같이 컸으니까...
- SH 이 이모가 엄마한테 전화도 안했어요? -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개가 그 일을 다 꾸짖는데, 나한테
왜 전화를 하겠냐? -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놀래
면서 - 엄마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까일 수 있다 - 라는 걸 알았대요(중간 생
략)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일을 친구가 조작을 하고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간 그런걸 보면서 아..죽을 일이었는
데, 살은 거였구나...” <연구 참여자 1>

“그런 게 한 10년은 갔어. 10년. 10년을 그렇게 살았
어.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그래 사는 것도 여기 와서 많
이 봤는데,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걸 그
렇게 힘든다는 걸 몰라. 몰라 사람들은..”
<연구 참여자 2>

“30대에 그렇게 집을 끌고 왔으면 남편이 도와 줘야
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전세도 6천만 원 대출 받
아서 5천 걸고 내가 임신6개월에 내려가서 삼촌이 보
증서서 6천 대출받아서 했는데.. 시집에서는 지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원래 사주는 거라며 나는 받은 게 없
어..

롯데백화점에 가서는 안 사줄 것 아는데,
사준다면 불편해서 - 내가 사야죠 - 그렇게 했는데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가서 몇 만원 짜리 그릇을 사
더라고..” <연구 참여자 3>

“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애 키우는 것이 힘든 일이 없었는데 날더러 엄마의 역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때 자타가 가장 잘하는 엄마라고 했을 때거든.. 그래서 엄마역할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당신은 엄마 역할을 가장 싫어하고 당신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불쌍하고 너무 특색해서.. 너무 화나가서 당신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상담 안받겠다하고 하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나를 찢어발기니까 내가 엄마 역할을 싫어하나? 고민하다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엄마 하고 들러 붙잖아. 그게 싫은 거지. 저리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모는거야..” <연구 참여자 3>

‘역경’

“MM회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명예롭게 그만두고 싶었는데...내 스스로는 불명예가 아닌데, 불명예처럼 만드느 거잖아요. (이하 생략)” <연구 참여자 1>

“그때 지나고 40대가 되니까 친구들은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다 갖고 있더라고... 그 순간 나는 뭐했지? 속이 너무 상하는데 할 수 없잖아. (중간 생략) 치과의사로 사는 것에 힘들고 애들도 조금 크고 내가 보니까 40대에 그런 게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때 언니들이 대치동의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더라고.. 많이 힘들거야 그러면서..(중간 생략) 내가 받아볼까 하고 한 후배에게도 상의하니 저도 받고 가는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어.(이하 생략)..” <연구 참여자 3>

“너무 어이없는 배신이라서....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중간 생략) 뭐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죽고 싶었어요. 마치 캄캄한 터널 안에 있는 느낌이었고, 무기력함이 갱년기와 함께 와서 심한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중간 생략) 배란다 아래가 솜사탕 같아 보이고 저기로 가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죽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4>

“GG 딸이 그 MM항공, GG랑 부인이랑 그 나쁜 짓 하

는 사람들 그걸 다 봤거든요. 내가 부장이니까...그걸 다 보면서 나는 그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오면서 아... 그 사람들의 그걸 다 밝히고 싶다 생각했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중간 생략) SS 회항하면서 그 사람들이 호되게 당하는 걸 보고...그 일을 이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머지 기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당한 일들 내가 녹음한 것을 보여줬을 때 ‘이 집안이 이런 일 외에 굉장히 더 많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더 많다’ 다 덮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맞기도 했으니까...나는 맞아도 그게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 다 연결이 돼서 다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되더라고요...(이하 생략)<연구 참여자 1>

“요즘은 손톱도 안 들어가잖아. 누가 시어머니 모실라 카고 누가 뭐 그래해?

누가 똥오줌 못 가려도 당연히 그냥 요양병원에 딱 모실려고 하지. 누가 며느리가 직접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안하잖아(중간 생략) 애 셋 키우기도 힘든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그러고 하니까 힘들잖아. 나는 진짜 싫은데, 남편은 싸우기도 싫어. 이게 왜냐? 그때는 우리 신랑이 성당을 안 다녔잖아. 그러니까 “너는 성당 다니면서 뭐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럴까봐... 괜히 내가 괜히(홍분하며) 왜 그런거 있잖아. 내 자격지심에 그냥 그때는 우리 신랑이 꼭 성당 다니면 다 착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연구 참여자 2>

“나는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내면적으로 40대를 거쳐 가서 그런 것 같아” <연구 참여자 3>

“남편이 나를 데리고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구 강릉에 갔어요. 강릉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바다에 혼자 앉아 놓고 강릉에서 속초에서 혼자서 하염없이 혼자서 울게 놔 두더라고요...그리고 또 데리고 오고...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춘천에 데려가서 또...그 대신 직장은 안가면 안 되니까, 가고...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데려가고 데려 오고...시골 성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성가 혼자 크게 부르고 뿑뿑 소리 지르고 성가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치유를 한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1>

‘하소연 할 곳을 찾음’

“그 수사님이 자기 같으면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미쳤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아온 것을 조금 얘기했을 때, 그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큰 일을 당한 건데,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내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피정까지 오게 됐냐고...” (중간 생략) 근데 그 일이 있는 다음에 저기를 갔어요. 피정을... 갔는데, 그 피정이 저한테는 아주 피크였던 것 같아 저한테는... 피정이 뭐였냐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피정이 4박 5일이었는데, 우리 병원에 수녀님이 계셨는데,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힘없어 다니는 걸 보시구.. 예전부터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거기서 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나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게 많이 떠오른다 기도 중에 내가 잘못된 게 많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수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힘든 일을 하느님 아버지한테 떼 부리듯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얘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중간 생략)... 몇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중간 생략)... 했으니까 그년 욱을 쌓년, 씨발년 하면서 그 편지를 쓰래요. 이 씨발년 쌓년 죽일년 죽여주세요. 이렇게... 욱하고 쓰고 그걸 읽으래요. 그리고 너무 슬프고 힘들면 여기 같이 공동 기도하는 시간에 오지 말고 니 방에서 고상 내려 놓고 옆에다 놓고 누우래요. 같이... 눕고 욱하래. 아버지한테 떼 부리듯이... 템퍼링 (tempering) 하듯이... 아... 벼둥벼둥하면서... 얘기하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치유가 되더라고요(이하 생략)”

<연구 참여자 1>

“예를 들어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 시집 식구들을 미워하면 그게 죄지.. 성사를 보러 가면 신부님한테, 한번 가면 벌써 눈물이 나. 눈물이 나서 목이 메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거기 가서 고해 성사실에서 나도 모르게 영영 울어.. 신부님이 “자매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많이 힘드신가보군요” 이러면서 “그냥 마음 추스르고 힘든 점 있으면, 다음에 이렇게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인제 자기가 고해성사 그런걸 뭐 할 때 여기 와서 한번씩 평평 울으래.... 하느님은 다 알거 아니냐? 그래서 고때 몇 번을 그랬어.... 진짜야” <연구 참여자 2>

“그런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내가 찾았잖아.. 희말라야도 JH이가 D되고 붙고 가자하고 떠났을 때 내가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었어... 그때 마음의 공부를 하려고 기수련도 다니고 그랬었어...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다스릴 수 있을 까? 주변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잘 못 되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이하 생략) <연구 참여자 3>

“지난 일인데, 너무 힘든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J업체 사장한테 정말 너무 너무 시달렸어요... 노예 계약 같은 거에 끌려 다닌 거죠... (중간생략)... 그랬더니 갑자기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냥 형식인니까 싸인만 하라더군요.(중간 생략)..... 이때부터 노예계약이 시작된 거예요..... 동영상 찍으러 갔는데, 추운 겨울날 난방도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한 평 남직한 곳에서.....(중간생략)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수많은 날들을 촬영을 하였어요.(중간 생략)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촬영하면서(중간 생략) 이 시점이 되니 또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현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중간 생략) 직장에 오면 내용증명 등기가 왔다고 직원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창피하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리고 공포스러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중간 생략)

그 때 너무 힘들어서 매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성체 조배실에서 기도를 마치 즈음에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 너는 다 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마라 -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그게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런 응답이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연구 참여자 4>

“제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중간 생략)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참 관대하다 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사람과 한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밤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꼭 하고 오더라고요. 하루는 못가는 날, 카세트를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남 보기 챙피하다며, 찬송가를 틀어놓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고난을 겪는데도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영성인 것 같다” <연구 참여자 7>

‘인내심을 기르게 됨’

“피정가기 전에 성당에 가면서 나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안 살겠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거나 정의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갓출 만큼 다 갓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되는지...나 앞으로 착하게 살지 않을거구 나쁘게 살거구 다 해 볼거구 다 하느님한테 말하구 돌아서서 나오는데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하느님 나 그렇게 안 살거구 다시 착하게 살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싹싹 빌고 혼자서 성가를 크게...(중간 생략)”
<연구 참여자 1>

“성당 다니면서 참는 게 생긴 거지.. 종교가 없었으면 그런 고비를 참고 했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지...예를 들어 이제 자기가 막 억지소리를 하잖아. (중간 생략) 싸우면은 “너는 성당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한다” 구. 왜 머 그런 거 있잖아. (중간 생략) 또 내가 그런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또 내가 참는 거야. 참고 이 악물고 하지. 하고 또 성당 가서 고해성사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목이 메이고 그러면 우는 거야” <연구 참여자 2>

“나의 힘든 일에 대한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섭섭함, 불만이 있었어.....병원이 힘들면 나가지 말라고 그걸로 유세하냐고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두었어. 그런데 인생에 너무 도움이 되었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서적이었던지 내가 많이 두들겼어.... (이하 생략).” <연구 참여자 3>

“하느님이 알아서 벌을 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절대 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벌을 받으라고요. 내가 아무 것도 안 해도....그냥 참으면....그런 거를 보면서 하느님이 다 알

아서 해 주시는구나” <연구 참여자 4>

“나 원래 가톨릭계 고등학교 다녔어...그래서 세례도 받고...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가야지...하고 있어...먼지 마음 속에 늘 의지가 된다고 할까...”
<연구 참여자 5>

“저는 지금이 제일 힘든 거 같아요....남편이 사업 망하고...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참을 수 있고....절에 가면 편안해져요...” <연구 참여자 6>

구성요소 4. 결혼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아련한 추억’ 과 ‘남편과 맞추며 사는 삶’ 등 ‘결혼’ 에 있어서 오랫동안 사귀를 통해서 서로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맞추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런 반면 그렇지 않은 결혼을 한 연구 참여자들은 인내하며 남편과 인생을 맞추어가며 살아가고 있었다. 자세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남편과의 아련한 추억’

“남편이 그...대학을 다니면서 야학을 했는데, 야학을 잘 하려면 학과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휴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1년을 늦었고 그리고는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을 안 하고요. 나는 벌써 취업했는데, 취업을 안 하고 소설책을 몇 박스를 싸 들고 산으로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머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머지 법관 되려고 절에 가잖아요. 우리 남편은 평생 읽을 소설책을 읽어야 된다면서 책을 싸들고 절로 들어 가더라고요.(중간 생략) A 대 졸업했는데, A 대에서 학보 옛 날에는 학보지 학교에다 학보지 보냈잖아요. 학보지 보내면 다 독일어로 써 보내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독일어 선배, 독일어과 나온 선배한테, - 선배님, 애 머래요? 읽어달라고 하면 그 선배님이 맨날 해석해 주면서 맨애 너 너무 좋아한다 - 우리 선배 언니가 맨날 그랬는데(웃음)” <연구 참여자 1>

“안동에서 중매로 만났지..전에는 부모가 시키면 했지...

근데, 처음엔 형님이 부모님을 모셨지...우린 안산에서 살았고...그러다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남편이 대구와 안동 고속도로 공사하러 다시 안동으로 내려오게 된 거지.....(중간 생략)
내가 조카를 키웠잖아...(힘든 표정) <연구 참여자 2>

“E대 대학원은 병원을 안 비워도 되고 저녁에 하고 (야간 수업이라는 의미) Y대는 임상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임상 실습도 견해야 한다는 의미)
병원을 너무 비워야하고 그래서 E대 대학원을 가야하는데 거기는 의대 뿐 인거야. 그래서 의대 수업도 듣고 하는데 난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지.. 원래 의대 가고 싶었는데.. 언니 때문에 치대로 온 거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 영어도 해야 하고 새벽에 영어도 해야 하는데, 집에 가서 보면 애들이 나를 보고 매달리고 남편이 그런 걸 해줘야하는데..(원망하듯)30대에 그렇게 집을 끌고 왔으면 남편이 도와 줘야 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연구 참여자 3>

“남편이 8살이 많아요... 나이차이 많이 나는 거 안 좋은 거 같아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사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중간 생략)예를 들면 우리 집은 끈끈한 피로 맺어진 형제이다. 그래서 니가 그걸 끊어 놓는다..이러는 거죠...남편 집이 이해가 안되는..다 뜯어가는 집이에요...(중간 생략)
자기네 형제들 인연을 끊어 놓는다면서 다리 몽땅이를 분지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굉장히 무서웠어요. 자기 형제만 중요하고 부인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 사람이랑 살기 싫었어요....” <연구 참여자 4>

“처음에 만났을 때, 중매였어... 이 사람 참 멋있었지... 집안도 부자였고... 산업은행 임원이었으니까... 시아버지가...근데, 애 아버지가 한 번도 직장 다닐 때 월급을 다 주지 않았어. 딱 생활비만 주었어... 며 조금 주진 않았지만... 늘 이게 불만이었어... 그때 나한테 다 주었다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불렀을텐데.... 그래도 편하게 산 편이야. 그렇지만 늘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눈을 돌리게 된 것 같아....” <연구 참여자 5>

‘남편과 맞추며 사는 삶’

“대기 고집스럽고 약간 머랄까. 음...업세시브 (obsessive) 하고 심지어는 좀 약간 정신병자같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 깨끗해야 되고, 업세시브 (obsessive)한거.. 그런 거 머라 해요? 하여튼 깨끗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조금만 따라가면 디게 좋은 사람 되더라고요.(중간 생략)
아직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남편한테, 부인 너무 불쌍하다고...(웃음).
아니 그냥 머. 자기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라 맞추기가 대기 힘들텐데, 어떻게 맞추고 잘 산다고...
근데, 대기 좋은 사람이예요. 우리 남편. 굉장히 좋은 사람이예요. 하여튼 대기 좋은 사람이예요(반복해서 말함). 어떤 수준이 있어요, 그걸 맞춰야 되는 그런... 그것만 딱 맞추면..나는 그게 어떤 믿음 같어요.
두 사람사이의 믿음. 그것만 딱 맞추면 그 이상은 절대 터치 하지 않아요” <연구 참여자 1>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면서 남자들은 그런 세계가 막 그렇잖아...여자들하고는 말을 잘 섞지 못하고 그렇게 해..성당을 다니면서... 자기가 옛날에는 집에 오면서 식구들밖에 없었어..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마누라는 성당 열심히 다니고, 내가 마당 밭이라고 했잖아...동네사람도 아는 사람이 많아...
나오면 인사하기 바빠...애들 학교 쫓아 가면은 나는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인사하다가 볼일 다보지....그런데 신랑은 뽕 줌 한거야...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찍 가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래서 자기가 안 좋아 하더라구” <연구 참여자 2>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미국에 간 이후로 한 번도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싸움의 원인이었죠... 한국에 왔는데, 어디 가면 차비할 거 돈 만원씩 주고 그랬죠... 그래서 직장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다닌 거 같아요...(중간 생략) 이제는 며 남편에게 관심에 전혀 없어지고... 최근 들어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 한 게 많구나...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을 조금 더 인간으로서 이해하게 되는 거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 모두 내 잘못이더라구요..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나의 행동을 내가 돌이켜 보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되게 잘 해주고 있더라구요... 심지어 밥 같은 것도 떠먹여주고.....(중간 생략) 남편은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불만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지 이해가 잘되지 않았으나 생각해보니 우리 애한테 용돈도 주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잖아요...나한테 월급을 안 준대라고 생각하면서 싸운 건데.....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된 거죠...그래서 나를 바꿨죠...처음엔 내가 잘해주니까 안 믿었어요. 더 무시하고..... 성격상, 니가 그러니까 원래 그랬다 그러고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잘해주었어요 순하게....(이하 생략)” <연구 참여자 4>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짐’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지켜 준 것 같다고...그렇게 애길 하게 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1>

“이제는 싸움은 끝났지..젊었을 때는 자기 조카를 돌보고, 엄마를 모시고, 그런 거 땀에..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지 엄마는 재혼하고...우리 엄마가 조카 돌보래..남자는 지 잘나가고 그러면 결혼질 한 대..자기 조카 돌보고 그러면 그러지 못한대...역으로 지금은 우리 남편이 내 눈치를 봐...자기 엄마 돌아가시고 조카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능력 떨어지니까..전에는 부탁을 할 때도 강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부탁을 하고, 애 달래듯이 달래고...그런 게 달라진 거야” <연구 참여자 2>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을 내가 더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기도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4>

“남편이란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럴라고 애를 쓰지.. 원래 안 맞는 사람은 안 맞긴 하는데, 나중에는 서로 연민이야. 연민. 연민이 생기지. 살다 보면 연민이 안 생기겠냐? 안스럽고, 밉다가도 안스럽고 그래. 이젠 안스럽지. 난 8 살 차이냐(남편하고 나이 차이). 하여튼 나이 많은 사람하고 사는 건 좋지는 않아. 진짜 세대차 느낀다니까... 그래도 어찌나

내 팔자가 그러려니까... 세대차 느끼지만은 뭐 그냥 인제는 머 없어질까봐(남편이 죽을까봐) 겁도 나고, (웃음) 그렇더라...(체념한 듯이)” (중간 생략)
지금은 안 싸우지.. 왜냐하면 뭐 기대될 때가 없잖아. 사실..지금도 찌그덕 찌그덕 하는데, 한 번 일 있으면 - 아이 우리 둘 밖에 없으니까 - 뭐 이려고 하지” <연구 참여자 5>

‘나를 인정해 주는 가족’

“오빠까지 울더라고요. 그런거를 보면서, 아.. 나는 언니 오빠들한테 많이 위로를 받았고, 또 남편, 아이..사람들이 더 소중해졌고.....” <연구 참여자 1>

“시어머니 모시고 조카 데리고 있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지..조카를 고등학교 때 3년 데리고 있었지...우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우리 신랑이 E 고속도로 소장으로 있을 때....조카가 A역고 다니고 있었어....젊었었지. 30대 초반이었지...그래갖고..신랑은 7번째 아들...시아버지는 신랑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근데 이제 다 해주고 나니까 신랑이 이제 대가 고마워하고...시어머니도 자기 아들 성당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도 성당다니겠다고 해서 교리받고” (중간 생략) 그때는 한 10년은 고생은 했지만 잘 참은 거 같애. 잘 참고 애들도 그걸 다 알잖아. 엄마가 어떻게 살았구나. 지금은 애들도 내 말 잘 듣고 우리 신랑도 어쨌든 간에 고생시킨 걸 아니까 내가 뭐 말하면 될 수 있는 한 내 의견을 존중해주려고 그러고 이제 어디 가 갖고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있잖아. 우리 신랑이 거의 끝에 막내니까 우리 또래들은 지금 부모 모시는 거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얘기 들어 보면은 아.. 우리 마누라가 그래도 많이 참고 해줬다...(중간 생략)

근데 나는 그걸 다 해 놓으니까 우리 신랑이 딱 그러는 거야...그때는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들으면 (중간 생략)- 아이구 우리 000 최고다 - 안고 그래.

- 아이구~ 담배냄새 술 냄새 싫어 저리가 - 이러면 - 아이유~~ 이빠서 그런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애정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 애길 듣고 와서. 그런 행동을 보면은 마음고생 몸 고생은 했지만 평생을 바라보는 거잖아. 남편한테 애들한테..인정 받는 거잖아” <연구 참여자2 >

‘불편한 고부 사이’

“똑같은 어머님이라도 우리 친정엄마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내가 대화를 해보면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깊이는 못 들어가.... 왜냐면 그분도 사는 게 순탄했었기 때문에 아주 굴곡이 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굴곡이 심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때 그때 마다 성찰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그리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오히려 못 배우신 분들이 삶에 질곡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자기의 어떤 내적 성찰에 계기를 삼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대화가 깊어” <연구 참여자 3>

“요새 며느리 장난이 아니다. 당돌해 당돌해(큰 소리로) 말도 못하게 당돌해. 근데 내 며느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주 괜찮은 애들도 있어. 근데 거의 다 당돌하다고 보면 돼.(중간 생략) 둘이니까 비교가 되지 그럼. 큰 며느리는 엄청 당돌해. 그것도 교산데, 아닌 게 머시 그렇게 이유가 많고, 딱딱 대들고. 그래. 보기도 싫어. 보기 싫다니까. 둘째 며느리랑은 2년 동안 같이 살아도 크게 트러블 없었거든. “네 어머니” 이러거든. 단지 흠이 있다면 내가 엄청 깔끔 하잖나? 내가 대가 깔끔하거든. 요새 애들은 치우는 사람이 없거든. 정리정돈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아니야. 정리정돈을 잘했으면 좋겠지만은... 애만 순하면 머(며느리 성품이 순해야 좋겠다는 의미)(중간 생략) 며느리가 시집에 너무 무심해도 기분 나쁘지. 안 그러겠어?”<연구 참여자 5>

“아들이 어떤 아이와 결혼할지 걱정은 되죠...하지만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아서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그래도 걱정은 많이 되요...나는 그래도 종교가 같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아들을 위해선 나는 물러나 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4>

구성요소 5. 애달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를 비교’ 하면서 ‘애달픔을 진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신과 자녀를 비교’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한 10등쯤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과외가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전교1등 할 수 있었는데, 못했는데, 애는 진짜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과외를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공부를 못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가지고...하루는 소주를 2병을 마시고 집애를 들어갔어요.. 개가 중학교 때였죠. 술을 이만큼,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이만큼 술을 먹고 가 갖구, 이제, 그전에는 애기를 못한 거예요. 개(아들이라는 의미)한테....애기 하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애기,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못하는 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너는 다 해 줬는데, 공부를 못하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반에서 10등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집은 남편이랑 나는 공부를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이하 생략)” <연구 참여자 1>

“우리 JH(딸 이름)이가 되게 공부를 잘하잖아 잘 하는데 밤새기를 하면서도 놀거 다 놓고 운동할 것 다하고 몸가꾸고 친구들한테 인기쟁이고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왜 저러게 못 살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차이는 내가 서포트(support)해 주니까 그렇지만 다른 부모들처럼 서포트는 못 해주거든.... 그러니까 지가 남들 들어가는 유학비 반 밖에 안들어 가잖아...그런데도 돈을 갖고 잘 쓰고 여행도 목돈을 쓰는 게 아니니까 보내주고 그런 돈 갖고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내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 <연구 참여자 3>

“저는 성격이 걱정이 많은 편이어요...혈액형이 A라서 그런 거 같아요...근데 우리 아들은 성격이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늘 부러웠어요...참...나는 겁이 많아서 눈에 렌즈를 못 넣었는데, 글썄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농구를 하는데 안경을 쓰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렌즈를 넣었는데, 그 때 나도 용기를 내서 처음 넣었어요...(웃음) 그런데 그 애가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엄청 똥똥했어요.. 고등학교 때 138 키로였어요.. 지금은 한 70키로 정도인데...그 때 참 많이 마음 아팠죠...살 빼는데, 애가 막

쓰러지고... 악물 꾸고..." <연구 참여자 4>

"큰 아들은 자기가 할 일 딱딱 하는 애야..근데 둘째는 날 닮았어. 키만 멀 때 같이 커 갖고...노력을 안해... 나보다 더 한 거 같아...그래도 장가가고 며느리가 착해...옛날에는 참 많이 속상하고 그랬는데, 지금 잘하잖아?" <연구 참여자 5>

"늦게 결혼을 해서 애가 어려서 늘 걱정이에요...제가 직장 다니면서 엄마가 애를 돌봤는데, 그래서 애가 할머니를 너무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애 아빠는 애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나를 닮아서 성격이 밝은 거 같아요...아직 어려서 너무 너무 걱정이 되요..."<연구 참여자 6>

'자식이 잘되길 바램'

"시집가는 게 끝이 아니래...잘 가야지..시집 잘 가야지...지금이 제일 좋을 때래..그래도 시집갈 거면 가야 내 할 일이 다 해 줬다는 생각이 들지(중간 생략) "둘째는 사회복지사야. 그건 월급이 작대니까. 그거 받고 시집가기 힘들어. 경력 쌓고 오래되면 200만원 되지. 요즘 200만원 받고 살기 힘들지 않나?" <연구 참여자 2>

"우리 애들 다 결혼했지. 다 결혼 해가지고 하나는 수원 살고, 한명은 삼성이니까(자랑스러워 함)..수원 살고, 하나는 저 여지껏 같이 살았어. 2년 동안...왜냐면 내가 여기 없으니까(여기는 펜션을 의미함) 집은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대상자가 펜션에 계속 있을 수 없었다는 의미)" <연구 참여자 5>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가 사람이 배워야 돈이 없어도 행복 할 수 있다는 거야.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산속에 개울물에 발 담그고 침버거리고만 있어도 행복한 거 아니겠냐고....(이하 생략)" <연구 참여자 3>

구성요소 6. 점점 느껴지는 노화

연구 참여자들은 '점점 느껴지는 화' 를 '귀찮아짐', '애기하다가 자주 잊어버림' 과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으로 진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찮아짐'

"요즘 내가 약간 뜸하지...봉사도 때가 있어... 내가 2개 3개 하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으면 다시 올리가 힘든 거 같아...사람 다 똑같은 거 같아.. 내 기준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 시간에 내 가정에 중요함을 뒤 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그럴 때가 있어" <연구 참여자 2>

"편하기도 했죠? 전 폐경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편해진 거 같아요(생리하는게 귀찮았다는 의미). 생리가 가격도 절약되고..어느 날 H 마트에 갔는데, 난방이 켜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니까 안그러고...그래서 물어봤죠. 같이 간 사람한테.. 난방을 군데 군데 켜게 틀은 것 같냐고? 근데 아니래요. 그래서 이것이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어요. 또 처음 임용된 학교에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안 때주는데, 엄청 추울 때요...다른 사람들은 다 춥다는데, 전 갱년기 때문에 안 추웠어요..." <연구 참여자 4>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얼마나 돌아다녔냐? 이제는 귀찮고, 몸이 안 따라줘. 그렇다고 몸이 더 안 좋고 그런 건 없는데, 이젠 피곤해. 너무 돌아다니는 거. 그런데 집에는 못 있어. 성격이. 여행 많이 다녔어. 애네 아빠랑 같이 다니지. 친구랑 다니고... 많이 다녀야지. 안 그러면 얼마나 한이 되겠어?" <연구 참여자 5>

"나가면 돈을 쓰게 되니까.... D 시에서 직장 다닐 때엔 주말 부부였어요...애 학교 때문에 U시로 합친 거죠...늦게 애를 낳아서....남편이 원래는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합친 후로 한 번도 직장을 가져 본적이 없어요. 사업 하다 망하고... 지금은 가게 하는데, 어려워요....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요..." <연구 참여자 6>

'애기하다 자주 잊어버림'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갈 수 록 정신이 없는 거야.. 사는 게 이제 뭔가 줄이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100세 시대가 되니까 지금이 완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때가 되었는데 사실 몸은 걸보기에는 전보다 노화도 덜 되고 잘 먹고 하니까 아닌 듯해 보여도 모든 걸, 모든 일을 소화하기 힘든거야... 체력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는 피정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랬어” <연구 참여자 3>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구요. TV 리모콘을 찾다가 없으면 냉장고를 찾아본다고...요즘 나도 자주 얘기하다가 주제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얘기를 할 때는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머리에 떠올려요...” <연구 참여자 7>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언제부터인가 폐경 되고 5년 아니 4년쯤 되니까, 그때부터 확 올라 오더라고요. 얼굴 붉어지면서, 그래서 좀 일찍 폐경하고... 요새 외서는 괜찮아 지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덥다고 부채질하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갱년기 증상이라는 걸 느끼니까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연구 참여자 1>

“밤에 첫잠이 들었을 때 안 깨우면 자는데, 한 번 깨면 못 자..그래서 잠을 그냥 그냥 참았다가 자는 거지.. 조금이라도 자다 깨면 못자.. 전에는 안 그랬거든.. 전에는 자다 깨서 비몽 사몽하다가 딱 들어가서 잤잖아..이젠 아냐...잠이 안와....인터넷 검색하고, 그러면 눈이 감기더라구” <연구 참여자 2>

“갱년기라서 잠도 안 오고, 첫째 잠이 안와요... 고민 이래봐야 지금은 앞으로 뭐 하나.. 그 고민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6>

“활동을 안하면 자꾸 뒤쳐질 것 같아서...일부러 마음도 즐거워야 건강할 것 같아서, 기타도 배우러 가고 서예도 하면서 시간 보내요....” <연구 참여자 4>

구성요소 7. 삶의 초점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50대에서 ‘삶의 초점’ 을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기’, ‘경제적 여유를 바람’, ‘돈을 계산하게 됨’ 으로 진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도 다른 걸 보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 때 들어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발송한다든가... 중년 여성들에게, 어떤 사람이든 도움이 될 테니까.. 보내 주는 거죠. 똑 같은 경험을 할 경우가 있으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거...” <연구 참여자 1>

“저는 기도를 하면서 많이 변했어요...자꾸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되더라고요...자꾸 나 자신의 잘못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 같아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뀐 거죠...” <연구 참여자 4>

‘경제적 여유를 바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생활 자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 <연구 참여자 1>

“아...남자들은 다 60전에 퇴직하고... 나이 금방 먹는 다... 요즘 우리 신랑 나이에도 노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놀면서 그전에 돈을 대기 많이 벌여 놓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부싸움하고 그러거든 주변에..(중간 생략) 머 마트. 마트도 50대는 잘 안써 줘.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만날 싸우지” <연구 참여자 2>

“...보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은 뭐 먹고 나면 서로 돈 내려고 난리들이다. 이런 식 인거야 그러니까 뭘 못 줘서 안달인 거야. 뭐 막 나누어 주고 모임만 가면 싸들고 오기 바쁜 거야” <연구 참여자 3>

‘돈(연금)을 계산하게 됨’

“인제 지금은 50대가 접어들면서... 남편도 코앞에 60

이잖아. 그런 거 겪으면서 아... 원래는 우리 신앙 환갑 집값 다 지나면 고향에 인제 농사지으러 갈 생각은 있었어. 근데 도시에 계속 있을 생각은 안 했는데, 한 3년 땡겨진 거지 지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니까...돈도 그렇고....(중간 생략) 기 연금도 조기연금 받을라고 그래. 지금 62살부터 연금 나올걸. 우리 신앙은 땡겨 쓸라고 그래. 그러면 연금이 줄지. 그래도 한 4년 땡겨 쓰는 게 더 나아” <연구 참여자 2>

“우리 아들 28평 샀는데, 3억 8천 이더라구. 큰 애는 수원에 32평 샀는데, 6억..6억. 아..사 준 게 아니라 용자 끼고 사라고 했지. 이거 우리 집도 얼마 안가. 겨우 6억 나갈래나?(아파트 가격)” <연구 참여자 5>

“나이가 우리가 조금 있으면 노년이 되잖나요.... 저는 우리 학교를 63세까지 다녀야만 사학연금 20년이 되어서 연금이 나와요....우리남편은 회사니까 국민연금 11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연구 참여자 4>

“노년에 물물 팔라 돈만 쓰고 살면 좋지만 귀농해서 부모형제 곁에서 살면 좋을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7>

IV. 결론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경험

연구 참여자들의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조명’진 술에서 본질적인 의미로 도출한 7개의 구성요소와 26개의 하위구성요소를 일반적인 진술로 통합하여 현상학적 글쓰기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나이 50세에서 59세까지 중년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업은 교수 2명, 의사1명, 간호사 1명, 가정주부 1명, 농업 종사 1명, 개인사업 운영 1명 등으로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었으나 어릴 적 기억으로는 공통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이었다고 현재와 비교되는 것을 진술하였으며, 가난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이것은 자녀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만큼 따라와 주지 못할 때에 안타까움과 함께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 애달픔을 경험하였다. 특히 어릴 적에 잘 사는 친구들과 비교됨을 경험함으로써 자식들에게 좀 더 풍부한 것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릴 적에 조금 더 부자로 살았다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전문직으로 살아온 중년 여성들은 가정 주부로 살아온 중년 여성들 보다 젊은 시절의 시간을 역동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 그 삶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경험하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이때 친구 보다는 남편의 역할이 매우 큰 차이를 하였고 남편보다는 더 큰 역할을 한 것이 여성이었다. 여성을 채우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인내심을 기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가정주부로 살아온 중년 여성들은 시부모와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전문직 종사 중년 여성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것에 대한 보상을 그 당시엔 가족들이 몰라주어서 힘들었지만 중년이 되고 나니 알아주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전문직 종사 중년 여성들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과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 어려웠으며, 또한 직장 세계에서의 힘든 일을 겪어야 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모함과 음모에 휘둘러서 역경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역경을 가족들이 알아주지 못한 연구 참여자들은 원망도 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소연 할 곳을 나름대로 찾게 되는데, 결국엔 여성으로 귀의하게 되었다. 가정 전업 주부와 전문직 종사 연구 참여자들 모두 종교의 힘에 의해 치유를 받고 평온을 되찾으며 중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년은 이들에게 점점 귀찮아져서 사회활동을 줄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것은 이야기하다가 자주 잊어버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인지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점점 느껴지는 노화와 함께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초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며, 노후는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돈(연금)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경험을 정리해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년 여성들의 삶과 가정에 전

업 주부의 삶에 대한 경험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년 여성들은 어릴 적 가난함을 더욱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었으며, 가난함 때문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 사회생활의 치열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서 음모와 회생을 강요당한 반면, 가정주부들은 가족의 힘든 모든 일들을 혼자서 떠 맡아야 했다. 이러한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해 하소연 할 곳을 찾게 되었으며, 비로소 영성을 찾음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꿈으로써 자기 스스로 극복할 힘을 갖게 되었다. 이는 영성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Brady 외의 연구결과와 일치성을 보였다[30].

중년 여성들의 삶에 대한 조명 구조

중년 여성들의 삶에 대한 조명 구조(structure)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려운 가정 형편’, ‘원가족(family-of-origin)의 의미’, ‘역동적인 사회경험’, ‘결혼’, ‘역동적인 사회경험’, ‘결혼’, ‘애달픔’, ‘점점 느껴지는 노화’, ‘삶의 초점’이라는 관계의 맥락 속에서 도출된 경험을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Figure 1). 즉, 원가족(family-of-origin)의 의미와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강하게 느낄수록 성공에 대한 집념과 함께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반면에 어릴 적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느낀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주부로 살아가거나, 직장을 다녔어도 다시 전업주부로 귀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 나름대로 역경을 경험했다. 이러한 역경에서 위안을 받은 것이 영성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50대가 되었으며, 50대가 되어서 삶의 초점은 모두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경제적 풍족함을 기대하며, 현실적으로 돈(연금)을 계산하게 되었다.

V. 논의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조명을 참여자의 관점에서 살펴 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은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들에게 치열하게 젊은 시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어려움을 넘겨주지 않기 위하여 대단한 노력을 하였고 그 만큼 기대로 컸으나 자녀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에 가난하였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시기 때보다도 컸다고 조명된다. 따라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어릴 적에 가난함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들을 절실하게 느낀 중년 여성일수록 사회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Morgan 등[31]의 연구에서 적극적인 삶에 대한 참여가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사회참여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전업으로 가정주부 역할을 하였던 중년여성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가정의 주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단지, 어린 시절 자신이 처했던 현실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전문가적 사회적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가정주부로 중년을 맞이한 여성들에게 역경이 있었으나 이것은 가족 내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려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받았던 음모와 수모는 쉽사리 풀리기 어려웠던 역경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하소연 할 곳과 의지할 곳을 찾은 곳은 공통적으로 영성으로 나타났다. 영성을 통하여,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중년 여성들에게 바람직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바른 영성의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치열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과 함께 삶을 통합하는데, 일역을 할 것임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s Office. Population and society survey.
<http://kosta.go.kr/portal/kprea/index.action>. 2010.
- [2] K.R, Choi. Study on the crisis-consciousness of middle aged women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06.
- [3] D.S, Gweon, A.M, Cho. Adult learning and counseling. Seoul: Education Science publishment. p.75. 2003.
- [4] M.J, Kim. The study of middle-aged crisis and relating variables. Dotor's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1998.
- [5] S.K, Min, M.H, Lee. A diagnostic study of Hwabyung. J Korean Med Assoc, Vol 28(1). pp 604-616. 1989.
- [6] S.J, Park, E.Y, Choi. Content analysis of Hwa-byung Awarance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2). pp 1304-1317. 2015.
- [7] S.M, Choi, I.S, Ko, M.N, Choi, Y.S, Jang. The Relationship among Menopausal Symptoms, Competency of Self-Care Agency and Social Support in Middle-aged Woman. H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1(1):105-115. 2015.
- [8] E.M, Jeong, S.M, Cheon.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Job Stress Experience by Middle-aged Female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1(1), 137-164. 2014.
- [9] S.N, Kim, Spirituality and Self-esteem in Middle-aged Wome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2(2). pp 128-136. 2013.
- [10] M.Y, Kim. An Ethnographic Study on Middle aged Woman's Hwa-Byung with Upper Limb Arthropath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3(2), pp 160-169. 2007.
- [11] 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 Treatment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perational Stress Injury, or Critical Incident Stress: A Review of Guidelines [Internet]. Ottawa (ON): CADTH Rapid Response Reports. 2015.
- [12] Patton, M. Q.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1990.
- [13] S.J, Park, E.Y, Choi. Content Analysis of Hwa-Byung Awareness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2):1304-1317. 2015.
- [14] Y.M, Lee.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Middle-aged Women's Anger.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vol 16(4), 411-419. 2007.
- [15] M.L, Kim. A Study of Response characteristics of Nail Make-up Psychology Depending on Menopausal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20(5), 841-846. 2014.
- [16] Y.J, Yoo, Y.S, Yu, S.J, Kim. Bilateral Optic Neuropathy in Middle-aged Woman Associated with charcot Marie Tooth disease Type 2A: A Case Report. J Korean Ophthalmol Soc. Vol 55(4), 628-632. 2014.
- [17] S.H, Ahn. Femine Hygiene and Vaginal Doche Practices in MiddleO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 19(4), 285-2973 2013.
- [18] H.S, Park, E.G, Byeon, E.C, Lee, N.H, Lee. Factors influencing Sexual Dysfunction among Middle Ag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6(2),

- 201–209. 2012.
- [19] Skeie G, Mode N, Henningsen M, Borch KB. Validity of self-reported body mass index among middle-aged participants in the Norwegian Women and Cancer study. *Clin Epidemiol.* 2015 Jul 2;7:313–23. doi: 10.2147/CLEP.S83839. eCollection 2015.
- [20] Luchsinger JA, Cabral R, Eimicke JP, Manly JJ, Teresi J. Glycemia, Diabetes Status, and Cognition in Hispanic Adults Aged 55–64 Years. *Psychosom Med.* 2015 Jul–Aug;77(6):653–63. doi: 10.1097/PSY.000000000000208.
- [21] G.S, Lee.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4(1), 163–176.. 1996.
- [22] H.S, Kim, J. Jeon. The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Life Events Stress in Middle-Aged Christian women—Centering around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vol. 22(2). 153–183. 2014.
- [23] C.R, Cheon. Research on Life-structure Change and Neurosis of Mid-Life Transition Women in the view of Christian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 25(4), 285–308. 2014.
- [24] S.J, Kim, Y.S, Jeong. Relationship among Care for Spouse, Marit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aged married coupl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4), 27–49. 2014.
- [25] J.Y, Im, J.H, Kim.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Intimacy and Anxiety about Aging for Middle-aged Adults: Mediational Effects of Attach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6(4), 1131–1149. 2014.
- [26] J.H, Hong, M, Yeon. The Effect of Spirituality on Happiness and Depression of women in midlife.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Vol. 18(1), 219–242. 2013.
- [27] J.S, Yeon, B.S, Kim, H.C, Choi. The Structure Relationship among Spirituality, Life Meaning, Symbolic Immortality, and generativity in Middle Aged Adult. *The Korean of Christian Counseling.* Vol. 24(4), 101–120.
- [28] M.H, Park. Middle-aged Women's Existential well-being and self-empowerment.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9(2), 222–233. 2003.
- [29] Seidman, I.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8.
- [30] Brady, L. L. C., & Hapenny, A. Giving back and growing in service: Investigating spirituality, religiosity, and generativity in young adult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7, 162–167. 2010.
- [31] Morgan DD, Currow DC, Denehy L, Aranda SA. Living actively in the face of impending death: constantly adjusting to bodily decline at the end-of-life. *BMJ Support Palliat Care.* pii: bmjspcare-2014-000744. doi: 10.1136/bmjspcare-2014-000744.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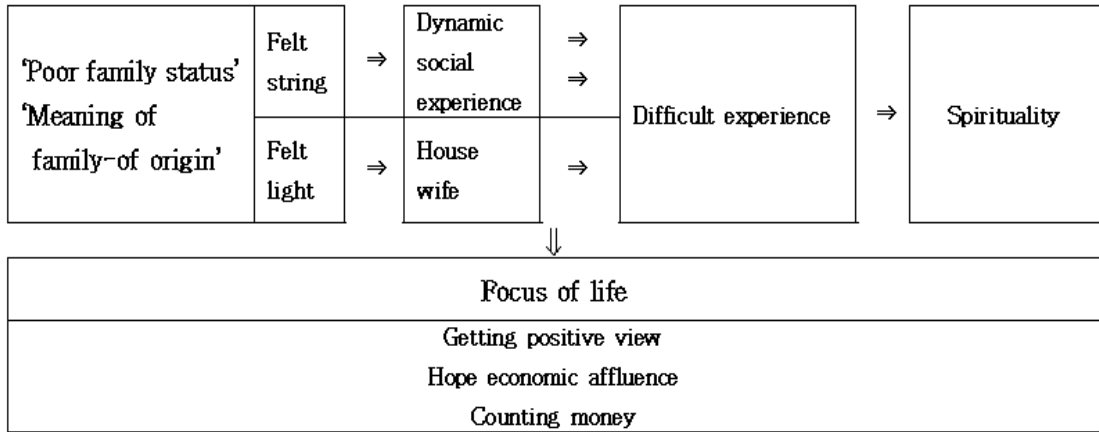


그림 1. 중년 여성들의 삶에 대한 조명 구조

Table1. The structure of middle-aged shed light on their life.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Table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No (Age)	Social Position	Marriage	Family Member	Religion
1 (53)	Professor	Married	Husband, Son 1`	Catholic
2 (51)	House wife	Married	Husband, Daughter 2	Catholic
3 (53)	Dr	Married	Husband, Daughter 1	None
4 (53)	Professor	Married	Husband, Son 1	Catholic
5 (59)	Own Business	Married	Husband, Son 2	Protestant
6 (50)	farming	Married	Husband, Son 1	Buddhism
7 (51)	Nurse	Unmarried	Living alone	None

표 2. 질문지

Table 2. Questionnaire

1. What is the most memorial experience until now in your life?
2. How did you adapt to that experience?
3. What is the effect of those experience, please tell me more specifically?
4. What is the meaning of those experience?
5. What is the family role when you had most memorial experience?
6. What do you think the getting over those most memorial experience?

표 3.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조명의 구성요소

Table 3. Elemental factors of middle-aged women shed light on their life

Elemental factors	Subelemental factors		
The power of future effort	1. Poor economic family	Poor but warm family Poor shadow Comparing with rich friend	
	2. Meaning of family-of origin	Helpful family Burden family	
		Deep loving memory to mother	
	Professional work factors	3. Dynamic social experience	Expended social environmental field Start 1st job Fighting to own life Resent
4. Marriage			Hard and painful experience Seeking for depending place Getting endurance power Happy and old memory with husband Adjusted to husband's life Expended spend time with husband Recognizing myself effort from family Uncomfortable new family member
			5. Heartrending
		6. Getting feeling of aging	
7. Focus of life			Positive view Hoping economic richness Counting money